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 23.(화) 06:00 < 1.23.(화) 석간 > 배포 2024. 1. 22.(월)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선협상 열려

-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을 반영한 차세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체결 추진

우리나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1.23.(화)~1.25.(목)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책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5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은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Brexit)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19년 서명, '21.1월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며 경제협력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협정문이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디지털, 공급망 등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국은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에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이후 협상분야 등에 대한 세부협의를 거쳐 이번에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였다.

이번 개선협상을 준비하면서 양국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분야의 최신화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바이오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신통상 규범 도입을 논의함으로써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 관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차 협상 개회식에 참석하여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양국 대표단에 "이러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한편, 양국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통상환경 조성"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책임자	과 장	고 현 (044-203-5750)
		담당자	사무관	박재형 (044-203-5754)
		담당자	사무관	심주영 (044-203-575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 고 **「한-영국 자유무역협정 (FTA) 개선협상」 개요**

□ 협상 목표

○ **한-영 FTA 개선협상**을 통해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 등**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한 현대화된 **차세대 FTA 협정 체결**

□ 추진 경과

○ 영국의 EU 탈퇴로 한-영 FTA는 한-EU FTA와 동일하게 우선 체결하고, **발효('21.1) 2년 내 후속 협상 개시**에 합의(협정문 제15.5조의2)

○ 한-영 정상회담('22.6월) 계기, 양국의 **개선협상 추진 의사 확인**

○ 공청회('22.10), 경제적 타당성 검토('23.2), 대외경제장관회의('23.5), 국회 산중위 보고('23.9) 등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

○ 우리 정상의 영국 국빈방문('23.11) 계기, 양국 **개선협상 개시 공동선언문 서명** 및 **제1차 협상을 '24.1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제1차 협상 개요

○ **일자/장소** : 1.23(화)~25(목) 3일간, 롯데호텔 서울

* 2차 협상은 3월중 영국(런던)에서 진행 예정

○ **대표단** : (韓) : 안창용 산업부 FTA정책관(수석대표) 외 대표단 30여명
(英) : 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수석대표) 등 20여명

○ **협상분야** : 서비스, 투자, 디지털, 원산지, 정부조달, TBT, 공급망, 바이오경제, 청정에너지, 환경, SPS, 경쟁, 개발, 젠더, 노동, 반부패, 모범규제환경 등 17개 분야, 총 10개 워킹그룹에서 논의